

특별강연

한국에너지협의회 조찬간담회

1993년 7월 7일 / 인터콘티넨탈호텔

## 에너지 · 資源政策의 課題와 方向

이 동 훈

상공자원부 차관

**불**을 발견한 이후 인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뚜렷한 존재가 되었다. 불을 많이 사용할수록 인류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으나 불을 만들어내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의 지나친 사용은 우리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생활환경을 가급적 덜 해치는 에너지원의 개발과 이용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채 매장량을 기준할 때 석유는 43년, LNG

는 59년, 석탄은 24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석유와 LNG는 21세기 중반에 거의 소진될 전망이다.

### 세계의 에너지 수요예측

거기예다가 석유는 중동에 66.1%(OPEC에 76.9%)가 부존되어 있고, 석탄의 경우도 석유만큼 지역적인 편재가 심하지는 않으나 옛 소련과 미국, 중국 등 3개국에 57%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따

라서 세계 에너지 시장은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에너지원별 소비에 있어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차 석유파동을 전후해서는 46-47%까지 높아졌으나 80년대 이후 OECD 등 선진국들의 에너지원 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석유의 비중이 40% 이하로 감소하고 있으며, 석유의 대체에너지로서의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

는 선진국(OECD 24개국)이 총 에너지의 52.3%를 소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84%를 차지하는 비 OECD 150여개국은 총 에너지의 47.7%만을 소비,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극심한 소비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소비에너지의 1.3%를 소비(세계 제11위)하고 있으며 석유의 도입량은 전 세계

도입량의 3.5%로 세계 제 6위의 수준이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으로 대략 일본의 1/2수준, 미국의 1/3수준이며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제 석유시장은 걸프사태 이후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주도 아래 중동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물량면에서도 수급균형이 이뤄지고 있어 당분간 17\$/B선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석유부존자원의 유한성과 점진적인 OPEC의 국제석유시장 점유율 확대로 당분간 신·재생에너지 문제인 개발 및 보급확대가 석유 수요를 근본적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한 고유가시대의 재도래가 예상된다.

**표 1. 세계에너지원별 소비 구성비 추이**

| 구분             | 1973  | 1979  | 1985  | 1990  |
|----------------|-------|-------|-------|-------|
| 석유             | 47.3  | 46.1  | 39.3  | 38.6  |
| 석탄             | 28.2  | 26.7  | 28.4  | 27.3  |
| 원자력            | 0.8   | 2.3   | 4.8   | 5.7   |
| 수력             | 5.6   | 6.2   | 7.1   | 6.7   |
| 천연가스           | 18.1  | 18.6  | 20.3  | 21.7  |
| 계              | 100   | 100   | 100   | 100   |
| 총소비량 : 백만(TOE) | 5,915 | 6,809 | 7,193 | 8,033 |

**표 2.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비교(91년)**

| 구분          | 한국    | 일본     | 미국     | 프랑스    |
|-------------|-------|--------|--------|--------|
| 1인당 GNP(\$) | 6,498 | 27,299 | 22,501 | 21,188 |
| 에너지소비량(TOE) | 2.39  | 3.54   | 7.72   | 3.73   |

**표 3. 에너지 사용량 증가추세**

|                | 1970 | 1980 | 1992 |
|----------------|------|------|------|
| 총에너지사용량(백만TOE) | 20   | 44   | 116  |

**표 4. 경제성장률 대비 에너지소비 증가율**

| 구분           | 86~88 | 90   | 91   |
|--------------|-------|------|------|
| 경제성장률(%)     | 12.8  | 9.3  | 4.7  |
| 에너지소비증가율(%)  | 10.2  | 14.1 | 12.3 |
| 에너지/ GNP 탄성치 | 0.80  | 1.52 | 2.62 |

**에너지政策의 當面課題와 政策方向**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에너지 사용량은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89년 이후에는 저에너지가격 정책과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신증설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에너지소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需給現況**

에너지소비구조도 석유, 전력 등 고급에너지 위주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자

원인 무연탄의 비중이 70년의 30%에서 92년에는 5%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에너지사용을 소비 부문별로 보면 70년대 후반까지는 가정 및 상업부문이 최대 소비부문이었으나, 80년 이후에는 산업부문이 최대 소비부문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 이용효율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선진국보다 낮으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당 에너지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소비의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변화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에너지 수입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에너지정책의 當面課題

그동안 에너지 수급 균형을 이루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은 배양되었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해외의존도가 심화되고 국제수지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또 에너지수요구조가 석유, 전력, 가스 등 고급에너지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에도 많은 애로가 있다. 수요급증에 대비한 공급시설의 건설에는 5-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지 확보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인 대기환경규제 추세와 관련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 제한이 불가피한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으로 시장기능이 취약해지고 그 결과 에너지산업의 정부 의존이 관행화되어 있어 물가안정 및 산업지원을 위한 에너지 저가격 유지로 소비절약 유도가 곤란한 현실이다.

### 새로운 에너지政策의 方向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하여는 우선 기존의 에너지 수급계획을 전반적으로

로 보완 및 조정하고 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 나가며 본원적인 소비절약을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에너지산업의 시장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에너지수급의 기본방향은 에너지정책을 지금까지의 공급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수요관리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97년까지 에너지소비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정책의 추진과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향상을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가격구조를 수요관리 위

표 5. 에너지원별 구성비 추이

| 구 분   | 단위: % |      |      |      |
|-------|-------|------|------|------|
|       | 70    | 80   | 88   | 92   |
| 석유비중  | 47.2  | 61.1 | 47.0 | 61.7 |
| 무연탄비중 | 29.4  | 22.5 | 16.5 | 5.2  |

표 6.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추이

| 구 분     | 단위: % |      |      |      |
|---------|-------|------|------|------|
|         | 1975  | 1980 | 1988 | 1992 |
| 산업부문    | 38.5  | 44.1 | 46.3 | 53.8 |
| 수송부문    | 9.5   | 13.0 | 17.6 | 19.9 |
| 가정·상업부문 | 45.3  | 37.3 | 32.2 | 23.8 |
| 공공기타    | 6.7   | 5.6  | 3.9  | 2.5  |

표 7. 선진국과의 에너지이용효율 비교

|                        | (단위: TOE/ 천, \$, 1985년변가격) |              |              |              |
|------------------------|----------------------------|--------------|--------------|--------------|
|                        | 한 국                        | 일 본          | 미 국          | 프 랑 스        |
| GNP 1000\$ 생산에 소요된 에너지 | 0.63<br>(100)              | 0.25<br>(40) | 0.43<br>(68) | 0.34<br>(54) |

주로 개편하고, 에너지관련 세제(특별소비세, 관세 등) 및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가격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이 유도되도록 할 것이다. 에너지 이용효율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지원 및 규제시책을 병행하고 에너지 수요증가 요인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시설 투자비용의 일부를 수요관리에 전환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현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선진국보다 낮으나 국내 화석에너지 사용비중(92년 82.3%)이 높아 90년대 후반에는 「90년 EC 평균」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90 EC 수준동결」로 설정될 것에 대비하여 에너지부문의 중장기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청정연료 및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등 에너지공급구조도 보완,조정할 것이다.

또, 예비율의 적정수준 유지로 발전설비를 최적화하고 석유수요의 경질화, 저공해화에 따른 정제시설의 고도화를 유도하며 자금 및 입지확보를 위한 대책강구로 에너지공급 설비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수급구조의 변화, 환경요인등을 고려, 종합에너지수급계획과 각 에너지원별 수급계획을 매 2년마다 조정함으로써 여건변화에 탄력있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 에너지저消費型 經濟構造

에너지사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개편하여 산업부문의 에너지/GNP 탄성치를 92년의 3.23에서 97년 0.85로 줄이고, 에너지 공급자에게 수요관리 시행의무를 제도화하며 민간과 지방의 참여와 창의를 활용하여 절약효과의 파급을

극대화 할 것이다.

에너지 저소비형 제조업 구조로의 개편은 전자,정보,기계 등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저소비업종의 발전을 촉진하고, 에너지 다소비업체 및 시설에 대한 절약방침을 강화하여 194개 다소비업종의 「절약5개년계획」 실천을 통해 원단위를 10%절감하도록 하고 에너지 소비시설의 신·증설시 현행 「에너지사용계획 신고제도」를 대규모 공공시설과 같이 「협의제도」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가 적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무료진단의 확대와 에너지관리자 채용의무완화 등 지원 위주로 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도로,항만,역 등 수송기반시설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시공하도록 하겠다. 건물과 주택의 설계,시공,사용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절약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 건물설계기준을 추가 제정하고 건물에너지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에너지공급자(한전 등)가 에너지공급시설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에너지수요관리에 투자하는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다. 특히 소비절약의 파급효과가 큰 전기 절약시책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고효율기기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및 구입자금 융자로 전기냉방

표 8. 에너지 의존도

| 구 분           | 1970  | 1980    | 1985    | 1988    | 1992     |
|---------------|-------|---------|---------|---------|----------|
|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 47.5  | 73.5    | 76.2    | 83.2    | 93.7     |
| 에너지수입액(백만\$)  | 136   | 6,589   | 6,575   | 5,516   | 14,329   |
| (석유수입액)       | (133) | (6,048) | (5,395) | (3,770) | (11,993) |

\* 1992년도 에너지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17.7%임.

표 9. 에너지소비 및 수입 증가추이

| 구 분              | 88   | 91    | 92    | 연평균증가율(%) |
|------------------|------|-------|-------|-----------|
| 총에너지소비(백만TOE)    | 75.4 | 103.4 | 115.6 | 11.3      |
| 제조업원단위(TOE/ 백만원) | 0.65 | 0.81  | 0.91  | 8.8       |
| 에너지수입액/ 총수입(%)   | 12.0 | 15.1  | 17.7  | -         |

대체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이 높고 대기환경개선에 효과가 큰 집단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주거지역 지역난방의 경우 92년 214천호에서 97년 1,119천호로 늘리고,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의 경우 92년기준 8개 공단에서 97년 20개 공단으로 보급을 늘여나갈 것이다.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준비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등 민간 에너지소비절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 민간과 지방의 참여와 창의를 통한 절약추진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 에너지 技術開發의 促進

에너지기술개발의 중점은 「소비절약기술」과 「화석에너지 대체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기술은 공익성이 크므로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되, 산, 학, 연이 협동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기술개발은 수요기술을 바탕으로 10개 분야 25개 중점과제에 역점을 두어 재정, 석유사업기금,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의 R&D 자금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산업체의 공공애로기술로써 단기간 내 실용화가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술은 민간주도로 개발하고 민간기

업만으로는 개발능력이 취약한 기술 및 대형 복합기술은 정부주도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전력, 가스기술 등은 관련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다.

화석에너지 대체기술은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10개 분야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다. 차세대원자로, 수소에너지, 에너지저장기술 등은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등 미래에너지의 기술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탈황, 탈진, 석탄가스화 복합화력발전기술 개발은 기후변화협약 대책과 연계 추진하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온실가스저감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개발된 기술의 보급촉진을 위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신기술 제품의 경우 정부 우선구매제도 및 장려금 지급제도를 확대하며, 개발기술의 실용화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대상을 신·재생에너지부문에 모든 에너지기술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다.

대학 내 에너지연구센터의 설립지원 및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개발능력 제고를 위해 고급기술인력의 국내외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에너지 연구인력 양성지원에 대한 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의 「에너지기술데이터베이스」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IEA, APEC, 쌍무 및

다자간 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

최근 설립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에너지와 자원기술 및 연구개발의 종합조정과 평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에너지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대규모 에너지공급자의 R&D자금 출연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 에너지産業 規制緩和와 競争促進

에너지가격의 자유화 폭을 최대한 넓히고 시기를 앞당기며 에너지산업의 독과점 완화 및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석유와 가스가격 관리제도의 개선 일환으로 94년 중 국내유가가 국제원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는 유가연동제를 시행하고, 경쟁여건이 정비되는 대로 완전자유화로 이행해 나가며, 유가가 자유화되면 정유회사에 대한 이윤규제도 철폐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유종간 가격이 국제가격구조로 접근되도록 휘발유와 경유간 및 LPG와 LNG간의 가격격차를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도시가스 가격조정은 94년 중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완전 이양하도록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전기요금 구조를 수요관리 위주로 개편하여 최대수요가 감축되도록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

금제를 강화하고 전체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의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등 요금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할 것이다.

석탄가격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하여 무연탄가격은 고시대상을 현재 9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연탄의 판매소이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에너지산업의 신규진입 규제완화를 위해 유가 자유화시책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유도시책과 연계하여 정유산업에의 신규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 석유수출입 제한도를 완화하여 가격자유화 단계별로 수출입을 허용하되(현재 5개 유종은 자유화), 일정수준의 비축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석유유통부문에 있어서도 경쟁체계가 구축되도록 주유소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상표표시제의 조기 정착으로 소비자가격의 경쟁이 실현되도록 하는 등 유통단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다.

천연가스(LNG)공급사업에 민간자본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도

록 하고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며 한국중공업의 경영정상화대책과 연계하여 발전설비제조 및 설치공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 부문별 시책의 추진

#### 석유

석유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공급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유국과의 경제·자원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중국과 CIS산 원유도입증대 등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여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노력을 지속하고 석유소비증가 및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석유정제시설을 확충하고, 97년까지 국제수준으로 정제시설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원활한 석유수송과 교통체증완화를 위해 정유공장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장거리 송유관의 확장 건설(1,076km), 송유관 건설에 따라 석유류 수송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수도권공단 등 대규모 석유소비지 인근에 저유시설을 확충하고, 공업단지 조성계

획 등의 수립시 미리 저유시설부지가 반영되도록 하겠다.

국제 석유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위기대응능력을 보다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석유비축량을 IEA 권고수준인 90일분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부비축 60일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7개 기지 신증설 외에 추가 기지건설을 추진하고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가겠다.

이와 병행하여 민간비축도 30일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내의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저공해 연료유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93년 1월부터 휘발유는 전량 납성분이 없는 무연휘발유만 공급중이고 연료용 유류도 유행함량을 대폭 낮추어 공급토록 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저유행유 공급촉진을 위해 저유행유와 고유행유간의 가격차이를 확대하고 정유시설 등의 고도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지속하겠다.

#### 가스

천연가스의 공급안정기반을 구축하여 청정·편리연료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 배관망 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97년에는 영 호남 주요도시까지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위주의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단순도입형태를 탈피하

표 10. 저유행유 공급계획

| 구 분  | 유행함량                      | 공급시기                             |
|------|---------------------------|----------------------------------|
| 경 유  | 1.0% → 0.4% → 0.2% → 0.1% | 93년부터 0.2% 공급<br>96년부터 0.1% 공급개시 |
| B-C유 | 4.0% → 1.6% → 1.0%        | 93년부터 일부지역에 1.0% 공급              |

여 국내 기업의 현지 가스개발참여를 통한 안정공급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국내 가스수요의 적정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우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수요가 평준화 되도록 가스냉방시스템의 보급확대와 요금제도 개선 등의 방법으로 계절별 수요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수요급증과 발전용 LNG 공급계획에 따라 전력수급계획과 연계,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보완하겠다.

천연가스사업의 경쟁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입단계와 국내 공급 단계에서 민간 참여의 허용을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LPG 수급 안정을 위한 수입기지도 확충하여 평택과 여천에 92년 현재 429천톤 수준의 수입기지를 97년까지 851톤으로 늘여갈 계획을 수립중이다.

### 전 력

발전사업의 경쟁추진과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력의 안정공급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 우선 97년까지 27기의 1,200만 kW의 신규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이다. 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신규 입지 확보를 위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증대 및 육성사업 위주로 지원사업을 전환해 나가고

신도시 및 대규모 공단조성시 발전소 입지도 동시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발전사업의 경쟁추진과 발전설비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 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자발전 허용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현행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전력사업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전력요금구조를 수요관리 위주로 개편하여 고율의 요금이 적용되는 하계 및 주간시간대를 단축하고 주간, 저녁, 심야시간대 간의 요금차등제를 확대하는 등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강화하고 전기요금체계에 있어서도 기본요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용, 농사용 등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

### 석 탄

이미 경제성을 상실한 비경제적인 탄광을 과감하게 폐광하여 국민경제부담을 줄이고 93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던 비경제 탄광 폐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경영이 어려운 대 탄광(석공 함백, 은성광업소 등)의 조기 폐광도 유도하도록 하겠다.

또한 기계화, 갱도굴진 등 생산보조 지원의 차등화와 정부비축, 광업자금 융자시 우대조치 등 각종 정부지원체계를 장기 가행가능탄광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다.

비경제탄광 폐광에 따른 탄광지역 경제위축의 방지를 목적으로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3~97년의 5년간간, 강원도 주요탄광지역 4개 시, 군(태백, 정선, 영월, 삼척)

표 9. 발전원별 확충계획(97년까지)

| 구 분     | 원자력   | 유연탄   | LNG   | 수력  | 계      |
|---------|-------|-------|-------|-----|--------|
| 기 수     | 3     | 12    | 7     | 5   | 27     |
| 용량(kW)천 | 2,700 | 6,120 | 2,950 | 723 | 12,493 |

표 12. 신·재생 에너지 개발계획

| 구 분     |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
|---------|--------|---------|---------|
| 계획기간    | 88~91  | 92~96   | 97~2001 |
| 개발목표    | 연구기반구축 | 실용화기반구축 | 기술자립달성  |
| 공급목표(%) | 0.4    | 1.0     | 3.0     |

표 13. 주요광종의 97년 개발수입 목표

| 유연탄 | 우리늄 | 동 광 | 연·아연 |
|-----|-----|-----|------|
| 18% | 18% | 12% | 12%  |

을 대상으로 하여 시가지 도로정비와 국도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광공단지 조성 및 아파트 건립 등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탄광진흥지역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

94년 이후부터는 그동안 동결되었던 탄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적정수준에서 정부지원을 지속하겠다.

### 신·재생에너지

국내 기술자립을 통해 2001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3%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석탄이용기술, 연료전지, 풍력, 수소, 해양에너지, 지열 등 10개 분야의 연구를 단계별로 개발 적극 추진하겠다.

실용화의 중점과제는 자동차연료용 알콜, 연료전지, 도시쓰레기 소각로, 태양광발전, 석탄유가스화 복합발전 등에 두고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와 산, 학, 연 협동 연구체제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되 기업주도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시 상용화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실용화, 상용화에 중점을 두겠다.

총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용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확대를 추진하겠다.

### 국내의 자원개발

국내 광물자원 생산체제의 현대화로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고 국내생산 광물자원의 정제 및 활용기술개발로 제품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국내 대륙붕에서 경제성있는 규모의 유전개발을 위해 탐사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해외유전개발 대상지역을 북방권 국가 등으로 확대(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하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업계 관련 개발설비 수주활동을 지원하겠다.

해외 광물자원개발의 적극 추진으로 개발수입을 확대, 공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주요자원에 대한 개발수입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금과 제도상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유망광산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대수요처간의 컨소시엄에 의한 개발참여를 유도하고 이와 함께 주요 자원보유국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자원협력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자원의외교 강화에도 적극 노력에너지원의 안정공급에 기여할 계획이다.

태평양 심해저 C-C해저(1,000천km<sup>2</sup>)에 대한 집중탐사 활동으로 유망구역(300천km<sup>2</sup>)을 확보하고 94년 중 광구등록을 추진하는 등 태평양 심해저광물자원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 新經濟計劃에 積極的인 參與를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고맙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에너지 전문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이제 국제무대에서 선진국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한다.

이번 새로운 정부는 작고 강력한 정부를 위한 조치로 동력자원부와 상공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발족됨으로써 에너지와 산업이 보다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에너지의 문제가 곧 국민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며 에너지 정책을 책임진 상공자원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시책은 미흡하나마 이번에 마련한 에너지자원부 신경제계획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

부처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에너지 자원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겠으며 여기 모인 에너지 관계자 여러분도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